

# 컬링

컬링은 '컬링 시트'라고 불리는 직사각형의 빙판에서 두 팀이 대결하는 경기입니다. 시트의 한쪽 끝에는 '하우스'라는 표적이 있고, 표적 중앙은 '버튼'이라 부릅니다. 경기의 목표는 화강암 재질의 커다란 '스톤'을 시트의 한쪽에서 반대쪽 하우스로 미끄러트려 '버튼'에 최대한 가깝게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In curling, two teams face off on a rectangular ice surface called a Curling Sheet. At one end lies a target, called The House, with a bull's-eye called the "button". The objective is to slide large granite stones from one end of the Curling Sheet to the other and have them come to a stop as close to the button as possible.

